

“기업하기 좋은 전북 조성”

민주 김관영 도지사 후보, 전주페이퍼 찾아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18일 전주페이퍼를 방문, 경제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김 후보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전주페이퍼의 현황과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근무자들과의 오찬을 함께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후보는 “전주페이퍼는 전주시와 55년 이상을 함께해온 향토기업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며 “이러한 향토기업이 전북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



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며, 기업인들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전북도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후보는 “무엇보다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오랜 시간 동안 동고동락한 향토기업의 성장은 전북의 경제를 튼튼히 만드는 근간이 된다”며 “앞으로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국힘 도당 선대위 발대식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발대식을 갖고 6·1 지방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출범을 알렸다.

(사진=국민의힘 전북도당 제공)

“전주 남부시장, 발전 잠재력 크다”

국힘 조배숙 도지사 후보,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 민생탐방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는 18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를 앞두고 전주남부시장(상인회장 하현수)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생탐방을 했다.

전주남부시장상인회 황상택 상무는 “전주남부시장이 대부분 무허가 건물 이어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식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양성화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통 편의를 높여야 하는데 현재 교통 체계로는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조 후보는 “전주남부시장은 역사적 가치가 크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청년물 등 발전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주남부시장이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완성차 공장 유치로 완주 경제지도 바꿀 것”

민주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가 현대자동차 1.5톤 트럭 완성차 공장을 유치해 다시 한 번 완주를 자동차 부흥기로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18일 유희태 후보는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이어 2차 완주테크노밸리에 현대자동차가 계획 중인 1.5톤 트럭 완성차 공장 유치로 완주의 미래 경제 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후보가 임기 내 전북에 5개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자 여기에 적극 부응해 보증을 맞추는 행보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완주군내 생산액 변화 및 부가가치 변화, 신규 고용 인원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공장 건설로 인해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 유발 등 단발성 효과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효과는 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1만개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이 있으며 인구정책, 경제 살리기 등이 한 번에 해결되는 사항이다.

유희태 후보는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면 그 공장에 지역의 고용창출은 물론 인구도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활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가 ‘경제’다 지역경제가 무너진 상태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나아가 넘어설 수 있도록 지역 경기를 확 끌어 올릴 수 있는 시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파격적인 행정으로 많은 혜택을 제시해 제2의 완주 부흥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또 “언제나 한발 앞선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면서 “완주산단의 부활은 완주형 일자리로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특교세 확보”



군산지역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인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 7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중소상공인 상품의 보관·포장·출하·배송 등 공동 관리, ▲지역 유통물류 정보 수집, ▲소비자-점포-물류센터 연결 온라인 유통물류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한다.

신 의원은 행정안전부, 전북도 등에 계속 조속한 센터 건립을 위한 특교 배정을 요청해왔다.

신영대 의원은 “코로나19 및 지역경기의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숙원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으로 군산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군산시민의 편의까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서거석 교육감 후보 정읍 연락사무소 개소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가 18일 정읍시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서 후보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 힘을 모아 전북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전북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이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 것”이라며 “학력 신장과 인성 함양이라는 교육의 기본 사명을 다하고, 교육격차를 줄여나갈 것”고 강조했다.

개소식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를 비롯한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김생기 전 시장,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등 약 30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1인 7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전주 동물원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19일)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투표절차 및 선거정보를 알리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수추계 대규모 오류, 국민 기만”

민주 김수홍 의원 “尹정부 일방적 지출구조조정, 국회·국민 무시하는 처사 국채 상환으로 9조원 잡혀… 두터운 지원에 방점, 지원액 차등 없도록 상향함”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17일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의 시행착오를 겪고 도 올해도 세수 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심



지어 작년 결산 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세입예산을 산정했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초과 세수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7조원의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확정된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칫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경의 목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국채 상환으로 9조원이 잡혀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수홍 의원은 “정부에 따르면 개인택시 600만원, 법인택시는 2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큰데 과연 현장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라며 “국채 상환보다는 두터운 지원에 방점을 뒀 지원액 차등이 없도록 상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